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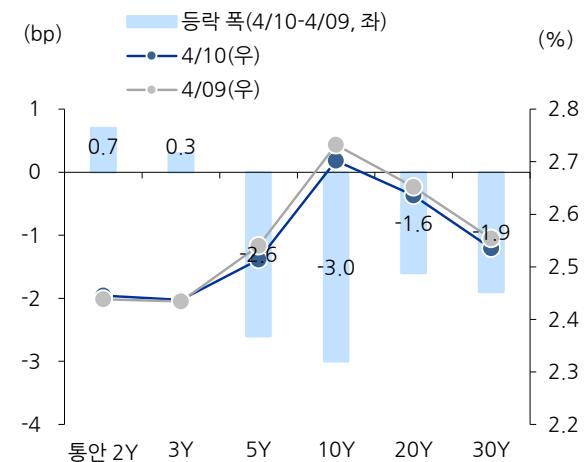
# 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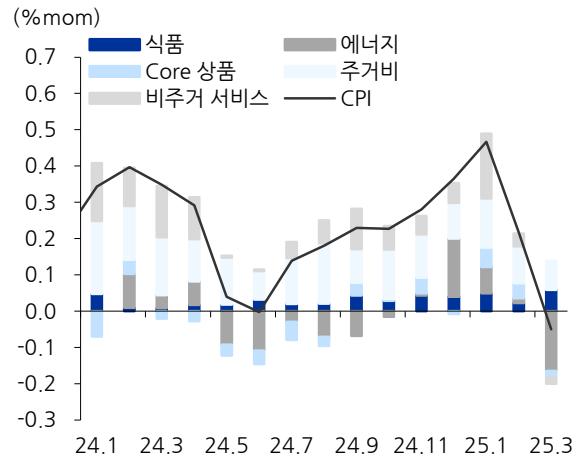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\_02)368-6138\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\_02)368-6177\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		(단위: %, bp, 틱)			
		4/1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37%	0.3	-92	-159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02%	-30	-36	-15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26.5	29.8	20.9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33	-30	30.0	68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9.88	18.0	38.0	296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64%	-4.8	17.5	-37.6
	미국채 10년물	4.428%	9.0	39.7	-14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56.4	42.6	34.2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578%	-0.7	-72	21.5
	호주국채 10년물	4.287%	-6.7	5.9	-8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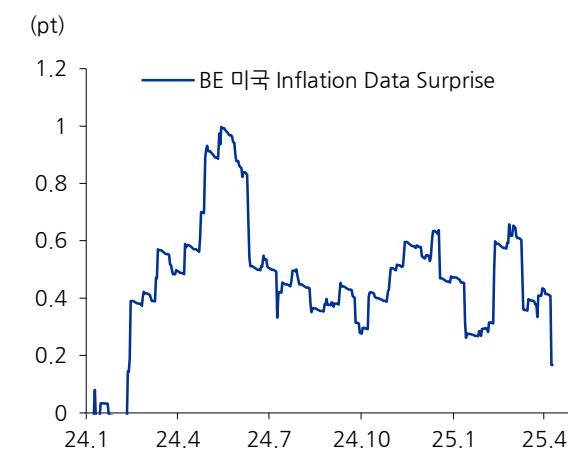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



## BE 미국 Inflation Data Surprise 지수 동향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장 중 가격 견인할 국내 요인 부재. 이날도 대외금리에 연동되는 흐름이 지속.
- 트럼프, 중국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 90일 유예하자 위험선호심리 부상. 이에 전일 급등한 미국채 2년 금리 연동되며 단기물은 약세 보였으나, 중장기물은 완만한 강세를 보임.
- 등락폭은 미국 대비 제한된 모습. 미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 여전한만큼 관망 분위기가 이어짐.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3월 미 CPI, -0.1%(M)으로 '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. 근원 CPI는 +0.1%(M)에 그쳐 시장 예상치 하회. 식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물가 둔화가 확인됨.
- 장 마감 무렵 금리 선물 시장은 6월까지 동결 확률을 약 16.3% 수준으로 반영.
- 한편 미국채 30년물 입찰은 전일 10년물 입찰에 이어 양호한 수요가 유입됨.
- 다만 채권 우호적 재료에도 불구하고, 상호관세 발표 후 나타난 장기채 투매는 이날도 지속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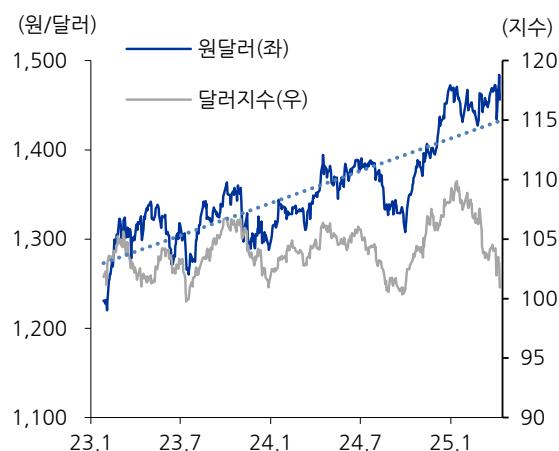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		(단위: %, \$)			
		4/10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56.40	-1.9%	-0.7%	-1.1%
	달러지수	100.94	-2.0%	-1.0%	-6.9%
	달러/유로	1.120	2.3%	1.4%	8.2%
	위안/달러(역외)	7.31	-0.5%	0.4%	-0.3%
	엔/달러	144.44	-2.2%	-1.1%	-8.1%
	달러/파운드	1.297	1.1%	-1.0%	3.6%
상품	해알/달러	5.89	1.1%	4.5%	-4.8%
	WTI 근월물(\$)	60.07	-3.7%	-10.3%	-16.2%
	금 현물(\$)	3,175.64	3.0%	1.9%	21.0%
	구리 3개월물(\$)	8,977.50	4.2%	-4.2%	2.4%

###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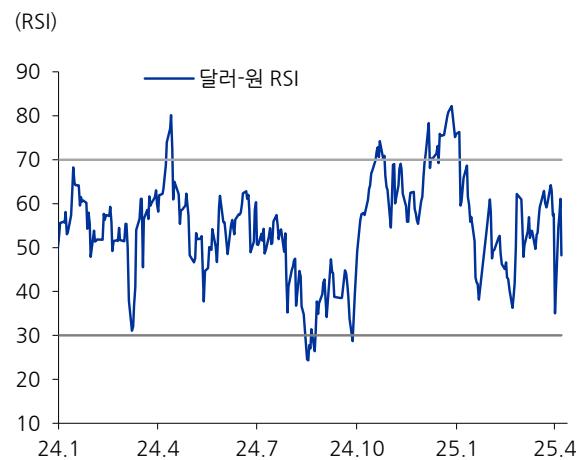
### 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27.70원 급락한 1,456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5.50원 마감.
- 간밤 미국의 중국 제외 상호관세 부과 예외 발표로 달러-원은 역외에서 급락했고 이를 반영해 -38.10원 급락한 1,446.00원에 출발.
-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되었음에도 달러-원은 개장 이후 저가 매수세에 낙폭을 축소. 국내증시는 개장 직후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갔고 오후 들어 상승폭 확대. 달러-원은 오후 들어 재차 1,460원대에 진입했으나 장 막판 반락.

###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인플레 둔화 및 미국채 투매 현상이 지속되면서 하락.
- 3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4%(Y), +2.8(Y) 상승 해 시장 예상치 하회. 식품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인플레 둔화. 다만 4월 보편관세 시행 감안 시 단기적인 상방리스크는 잔존.
-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 이후 반등했던 달러는 전일 미국장을 앞두고 속락. 간밤 백악관은 대중 관세율이 125%가 아닌 145%라 재확인. 인플레 둔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표 이후 미국채 투매 현상이 재차 심화되었고 달러도 추가 하락. 현재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저치.
- 금일 미국 PPI 및 미시간대 소비심리 발표 예정.